

포스텍 한세광 교수, 올해 한국생체재료학회 대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6 16:45

생체재료 분야 논문·특허 등 연구·기술 성과 인정 받아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한세광 교수. 사진=포스텍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한세광 교수가 최근 열린 '2024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생체재료학회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 학술대회는 생체재료 분야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서 대상 영예를 차지한 한 교수는 지난 2005년 포스텍에 부임해 생체재료 분야에서 학문적 우수성과 산업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연구자다.

2020년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에 이어 최근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처 리뷰즈 머티리얼즈(Nature Reviews Materials)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등 세계적 학술지에 18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130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며 연구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성과를 해외 학계도 인정해 한 교수는 최근 세계생체재료학회연합(IUSBSE)에서 신임 펠로우로 선정됐고, 생체재료 분야 최고권위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Biomaterials Research)'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한 교수는 “생체재료학회 대상 수상은 큰 영광이며, 이를 계기로 생체재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철훈 (kch0054@ekn.kr)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